

고고자료로 본 고 백포만의 포구세력

- 기원전 1세기부터 기원후 4세기대를 중심으로 -

이 동 희

I. 머리말

해남반도는 海灣을 중심으로 해남만, 백포만, 도암만 등 세 개의 권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¹⁾. 고(古) 백포만과 접하고 있는 행정구역은 해안가의 송지면과 화산면 이외에, 조금 더 내륙에 위치한 현산면이 포함된다.

고 백포만에 속해 있는 해남군 현산면 일원은 백제시대에 塞琴縣, 통일신라시대에 浸溟縣, 고려시대에 海南縣으로 각기 불렸는데, 침명현은 신미국이나 침미다례와 음상사하고 있어 주목된다²⁾.

3세기 후반 『晉書』 장화열전의 ‘新彌國’, 4세기 후반 『日本書紀』의 ‘忧彌多禮’는 모두 동일국으로 해남반도에 비정되는데, 특히 백포만이 주목된다. 4세기 후반대에 백제에 의한 ‘침미다례’ 도륙 기사를 보면, 백포만 일대를 포함한 해남지역은 4세기 중엽까지는 독립적인 정치체로 볼 수 있다.

고 백포만의 어귀에 위치한 군곡리유적은 중국에서 일본에 이르는 해로상에 위치하면서 해양교류의 거점이다³⁾. 기존에 해남 군곡리 유적을 포함하여 백포만의 중요 유적과 성격에 대한 조사·연구가 적지 않게 진행되었고, 문헌에 보이는 신미국이나 침미다례와 연결시키는 견해들이 제시된

1) 김미연, 「3~6세기 해남반도 고고학적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2) 강봉룡, 「해남 백포만 고대 포구세력의 존재양태」, 『백제학보』, 26(2018), 8~9쪽.

3) 최성락, 『한국 원삼국문화의 연구』 (서울: 학연문화사, 1993).

바 있다.

그런데, 해남지역의 고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고 백포만에 대하여 통시적으로 정치체의 형성과정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미약하였다. 특히, 백포만의 거점 항구와 관련되면서 정치체의 시작인 군곡리유적의 형성기부터 기원후 4세기대까지의 복합사회 성장과정에 대한 논의는 드물었다. 즉, 기존에 해남지역 고대사회에 대한 연구는 군곡리패총의 중요성 외에, 취락·고분 등의 고고자료가 비교적 뚜렷이 확인되는 3~6세기대에 집중되어 있다. 본고는 지식묘와 패총 자료 등의 고고자료를 참고하여 기원전후 시기부터 4세기후반대 근초고왕 남정시기까지를 중심으로 백포만의 역사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는 청동기시대 지식묘부터 원삼국시대 패총, 환호(환구), 분묘에 이르기까지의 최신 고고자료를 분석하여 읍락과 소국의 형성, 백제 편입 과정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해남지역 지식묘에 대한 조사·연구성과를 보면 지식묘의 하한이 기원전후까지 내려와 군곡리유적과 연결되고 있어 중요하다. 특히, 군곡리유적은 지식묘의 하한과 패총, 환호, 제의 유적 등이 조합관계를 보이고 있어 초기 정치체 즉, 읍락 형성 과정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전남 동부권에서 읍락 단위의 정치체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보성 조성리 유적에서도 지식묘 문화 기반하에서 환호취락이 성장하는 공간 분포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를 해남 백포만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고 백포만의 내륙에 위치한 현산면 분토유적과 해안변의 송지면 군곡리유적과의 비교를 통해 상대적인 위계관계를 설정할 수 있고 단계별로 중심지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고 백포만의 정치체 성장은 서해안과 남해안의 연안항로 루트에서 해양교통의 결절점이자 거점 역할을 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와 직결되는 것이 항시와 항시국가의 성장이다. 본고에서는 고 백포만 일대가 항시(국가)라는 관점에서 영산강유역과의 유기적 관련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군곡리유적을 포함한 고 백포만일대는 중국에서 일본에 이르는 중요한 기

항지임은 분명하지만 아직 대규모 분묘군이나 항만시설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⁴⁾. 이렇듯, 고 백포만에서 가장 중요한 군곡리유적에 대한 발굴조사가 아직 미약하여 향후 조사성과에 따라 역사적 해석에는 변동성이 상존한다.

II. 지식묘 조영기의 고 백포만 집단

1. 해남군의 지식묘

해남군의 지식묘 지표조사는 여러 차례 진행되었는데 이를 정리해 보면 <표 1>과 같다. 지표조사 때마다 군집과 기수가 상이한데, <표 1>은 최다 군집과 최다 기수를 종합한 내용이다. 총괄해 보면, 해남지역의 지식묘는 모두 118개군 1,302기에 달한다.

본고에서 주로 다루는 백포만, 즉 현산면·송지면·화산면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산면이 18개군 373기로 해남군에서 최다기수이고, 화산면은 7개군 144기이다. 군집평균기수로 보면 화산면 20.6기, 현산면 20.7기로 해남군의 면 단위에서 가장 밀집도가 높다⁵⁾. 이는 2개면의 지식묘군 존속기간이 길고 지식묘군을 축조한 집단의 규모, 즉 인구가 많았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현산면 고현리 지식묘 조사 결과, 소형대부토기와 우각형과수가 출토되어 그 하한을 기원후 1·2세기까지 내려볼 수 있는 유물들이다⁶⁾.

이에 비해 군곡리유적이 있는 송지면은 9개군 64기로서, 군집평균기수는

<표 14> 해남군의 지식묘 현황(조진선 2020)

연번	읍면	지식묘 조사 현황					종합		
		해남군의 문화유적 (1986)	문화유적 분포 지도 (2002)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17)	기타	대한문화재연구원 (2020)	최다군집수	최다기수	군집평균기수
1	해남읍	30	55	30	7	47	7	69	9.9
2	삼산면	43	60	49		49	11	72	6.5
3	화산면	141	142	127		127	7	144	20.6

4) 최성락·김영훈, 「해남 군곡리 패총의 위상과 역할」, 『군곡리 패총, 동아시아 해양교류의 시작』 (목포대학교박물관, 2019), 290~291쪽.

고고자료로 본 고 백포만의 포구세력

4	현산면	298	373	308		316	18	373	20.7
5	송지면	28	63	31		29	9	64	7.1
6	북평면	0	0	0	0	0	0	0	0
7	북일면	27	20	32		32	1	32	32
8	옥천면	160	167	140	2	124	21	201	9.6
9	계곡면	60	57	36		36	6	61	10.2
10	마산면	122	134	108		95	17	152	8.9
11	황산면	9	10	10		9	2	10	5.0
12	산이면	74	74	41		38	9	76	8.4
13	문내면	23	19	27		26	6	31	5.2
14	화원면	7	10	11		10	4	17	4.3
	합계	1,022	1,184	950		938	118	1,302	11

7.1기에 불과하여 소형 군집이 대다수를 점한다. 이는 백포만 입구의 송지면의 지석묘는 존속기간이 짧았을 가능성이 높고 시기적으로 늦을 것이다.

그리고, 해남군 지석묘의 분포밀도와 확산경로를 보아도 내륙인 옥천면에서 현산면·화산면을 거쳐 송지면으로 진출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해남면의 가장 남쪽인 송지면 남부와 북평면 일대에 지석묘가 분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지석묘의 확산경로를 짐작할 수 있다⁷⁾.

한편, 해남군의 지석묘 연대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한다.

해남군 일대는 보성강유역이나 탐진강유역보다 지석묘 축조연대가 늦은 편이다. 해남군 지석묘의 매장주체부는 대개 간단한 석관형이 중심으로 이루고, 석곽형이나 혼축형도 대부분 매장주체부만 갖춘 간단한 구조이

5) 조진선, 「해남의 고인돌 분포와 특징」, 『해남의 고인돌』 (해남군, 2020).

6) 조진선, 「해남반도권 지석묘의 등장과 확산과정」, 『호남고고학보』, 71(2022).

7) 조진선, 같은 책.

다. 이러한 형식의 지석묘는 비교적 늦은 시기에 해당한다. 즉, 해남반도의 지석묘는 조진선 분류 3~5기에 속해 중삼연대는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전후한 시기이다. 지석묘 출토 우각형과수나 늦은 단계 삼각구연점토대토기로 보면 해남반도 지석묘의 하한은 기원후 1~2세기까지 내려볼 수 있다⁸⁾. 예컨대, 군곡리 군안 3호 지석묘⁹⁾에서는 홀구연화가 진행되는 늦은 단계의 삼각구연점토대토기가 출토되어 기원후 1~2세기대까지 내려볼 수 있다. 이는 해남지역에 기원후 1~2세기대의 분묘가 뚜렷하지 않은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군곡리 유적 정상부에 기원전후한 시기의 거석기념물이 확인되어 지석묘의 하한과 관련지어 볼 수 있다.

2. 고 백포만 권역의 지석묘 현황과 분석

1) 고 백포만의 지석묘 유적

고 백포만 권역, 즉 화산면·송지면·현산면 일대의 지석묘군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고 백포만의 각 면별로 지석묘군을 정리하면 송지면 9개군 63기, 화산면 7개군 142기, 현산면 17개군 373기 이상 등이다.

<표 2> 백포만 권역의 지석묘 유적 일람표(목포대학교박물관 2002¹⁰⁾)

지석묘군 명칭	소재지	기수	비 고	
해창리 해창 지석묘	화산면	16	대표지석묘 500×450×160cm	
연정리 지석묘		48	대표지석묘 420×330×100cm	
부길리 은산 '가'지석묘		7	대표지석묘 490×300×60cm	
부길리 은산 '나'지석묘		6	남-북으로 1열	
방축리 방축 지석묘		10	현재 3기 잔존	
방축리 석전 지석묘		2	지석묘 간격은 약 100m	
방축리 은산 지석묘		53	대표지석묘 570×480×100cm	
군곡리 경모제 지석묘	송지면	6	대표지석묘 305×215×35cm	
군곡리 군안 지석묘		5	대표지석묘 360×300×150cm	
군곡리 말매등 지석묘		5	군곡리패총과 인접한 구릉위 대표지석묘 320×230×110cm	
군곡리 방처 지석묘		4	대표지석묘 300×220×40cm	
군곡리 현안 지석묘		4	4	패총 위에 지석묘 위치 대표지석묘 500×260×210cm

8) 조진선, 「해남반도권 지석묘의 등장과 확산과정」, 39~62쪽.

9) 김건수 외, 『해남 군곡리 패총 IV』 (목포대학교박물관, 2019).

10) 해남군에서 4차례 정도 지석묘에 대한 지표조사가 있었는데, 그 중 목포 대학박물관에서 2002년에 조사한 문화유적분포지도에서 가장 많은 지석묘가 보고되어 <표 2>를 작성함에 있어 이 조사보고서를 근간으로 하였다.

미야리 영평 '가'지석묘	현산면	4	대표지석묘 300×140×50cm
미야리 영평 '나'지석묘		28	대표지석묘 520×400×380cm
미야리 미야 지석묘		5	미야패총과 인접
가차리 화내 지석묘		2	대표지석묘 420×320×270cm
고현리 학의 '가'지석묘		8	대표지석묘 670×490×60cm
고현리 학의 '나'지석묘		20	
고현리 학의 '다'지석묘		25	대표지석묘 440×230×70cm
구시리 하구시 '가'지석묘		4	
구시리 하구시 '나'지석묘		6	대표지석묘 540×340×140cm
구시리 오시골 '가'지석묘		2+	대표지석묘 490×360×110cm
구시리 오시골 '나'지석묘		9	대표지석묘 300×80cm
일평리 일평 지석묘		3	대표지석묘 230×165×60cm
백포리 백포 지석묘		6	
월송리 원월송 지석묘		12	대표지석묘 230×170×50cm
월송리 증산 지석묘		2	대표지석묘 350×320×60cm
월송리 향교 지석묘	6	대표지석묘 300×210×100cm	
읍호리 읍호 '가'지석묘	2	대표지석묘 270×180×40cm	
읍호리 읍호 '나'지석묘	50+	대표지석묘 330×240×32cm	
읍호리 고담 지석묘	1	대표지석묘 230×180×55cm	
초호리 초호 지석묘	21	우각형파수 수습	
황산리 분토 지석묘	200+	대표지석묘 600×390×120cm	

2) 고 백포만에서의 중심 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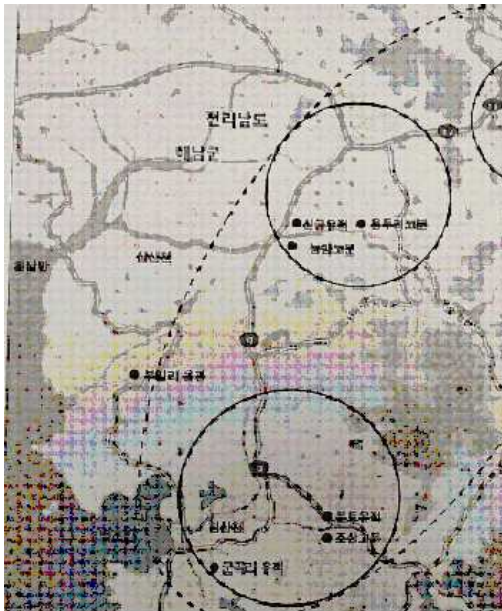
지석묘 축조 단계에 유력집단(大村,母村)은 인접한 촌락 범위내에서 지석묘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집단이다. 이는 인구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 지석묘가 조영되었다는 의미이다. 모촌을 중심으로 인근에는 자촌(子村) 조합상을 상정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숄바섬 지석묘에 대한 인류학적 조사에서도 대군집(모촌) 지석묘에서 소군집(자촌)으로 파생됨이 확인된다¹¹⁾. 고 백포만에서 지석묘 단계 유력 촌락 집단(大村,母村)의 선정 기준은 여러 세대가 장기간 지속되는 다군집의 지석묘군이다. 백포만에서 대촌간의 간격은 1.5~2km 정도이다.

11) 가중수 외, 『지금도 살아 숨쉬는 숄바섬의 지석묘 사회』 (성남: 북코리아, 2009).

<표 3> 고 백포만 지식묘사회에서의 유력 촌락 집단(大村) 현황표

행정구역	大村(母村)	子村
현산면	고현리 학의 '나'(20기)·'다'(25기)	고현리 학의 '가'(8기)
	읍호리 읍호 '나'(50기이상)	읍호리 읍호 '가'(2기)
	황산리 분토(200기)	초호리 초호(21기)
	월송리 원월송(12기)	월송리 증산(2기)·향교(6기)
화산면	해창리 해창(48기)	연정리(16)
	방축리 은산(53기)	방축리 방축(10기)·석전(2기)
송지면	미야리 영평 '나'(28기)	미야리 영평 '가'(4기)· 미야(5기)

상기한 바와 같이, 현산면에 지식묘의 절대 수 뿐만 아니라 多群集 지식묘 즉, 대촌(모촌)격의 지식묘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지식묘가 기본적으로 농경사회에 바탕을 두고 있어, 지식묘 축조 무렵에 해안가인 화산면·송지면보다 내륙인 현산면 일대의 가경지가 더 넓었던 것과 관련될 것이다. 해남지역 지식묘의 확산 경로상으로 보아도 백포만 내륙인 현산면이 해안가인 송지면·화산면보다 더 이르다는 연구성과¹²⁾와 무관하지 않다.



<그림 1> 해남지역 주요 유적 및 권역 구분(김낙중 2015)

12) 조진선, 「해남반도권 지식묘의 등장과 확산과정」.

그리고, 황산리 분토 지석묘군은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200여기에 달하여 해남에서 최대 군집이다. 더구나 황산리 분토 지석묘군의 最大 上石은 백포만에서 최대 규모(600×390×120cm)로 파악되기에 지석묘군의 군집도와 상석의 크기는 일정한 비례관계를 엿볼 수 있다. 거대 상석을 이동할 만큼의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이는 청동기시대부터 이곳이 중심집단이었음을 의미하고, 분토 일대에 해남에서 가장 이른 단계(2세기대)의 토광묘¹³⁾가 발견된 것도 우연이 아닐 것이다. 고고자료로 보면, 현산면 황산리 분토세력은 신미국 형성기에 군곡리 세력과 함께 주축세력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Ⅲ. 패총 성행기의 고 백포만과 군곡리유적, 그리고 읍락 형성

1. 해남반도와 고 백포만의 패총 유적

현재까지 해남반도에서 확인된 패총 유적을 정리하면 <표 4>와 같은데, 모두 20개소의 유적이 확인되었다. 해남반도에서 패총은 군곡리유적이 소재한 송지면에 8개소, 현산면 4개소, 화산면 2개소 등 백포만에 14개소가 있고, 그 외에 해남읍 3개소·황산면 1개소·산이면 2개소 등이 확인되었다¹⁴⁾. 철기시대로 좁히면 송지면 8개소, 현산면 4개소, 화산면 1개소, 해남읍 2개소, 황산면과 산이면 각 1개소가 되어 송지면·현산면·화산면 등 백포만 일대에 패총이 집중된다.

본고에서 주로 다루는 군곡리 패총은 그 규모로 보면 동시대 해남의 여러 패총과 비교하여 규모가 탁월하다. 즉, 길이 300m, 너비 200m로 그 면적이 2만여평에 달한다¹⁵⁾. 여타 패총은 길이 20m 내외가 다수를 점한다.

13) 전남문화재연구원, 『해남 황산리 분토유적Ⅱ』 (2009).

14) 목포대학교박물관, 『문화유적분포지도-전남 해남군-』 (2002).

15) 최성락, 「해남 군곡리 패총의 발굴조사 성과와 의의」, 『군곡리 패총, 동아시아 해양교류의 시작』 (목포대학교박물관, 2019).

<표 4> 해남반도의 패총 유적 일람표(목포대학교박물관 2002)

패총 명칭	소재지	시대	최대 규모(m)	출토 유물
연동리 남송	해남읍	철기	패각층 소규모	적갈색연질토기
내사리 신리		삼국	길이10,너비0.5	회청색경질토기
옥녀봉		철기	너비2, 높이5	적갈색경질토기, 회청색 경질토기
연호리 와등	황산면	철기	길이10,두께0.5	경질무문토기
대진리 대진	산이면	철기	길이7,두께0.7	경질무문토기
대진리 지사		삼국	길이 40,너비 25	회청색경질토기
석호리 대인동	화산면	철기	길이25, 두께2.1	격자문 타날 적갈색연질 토기편
석호리 흑석		삼국	길이10,두께0.5	회청색경질토기편
일평리 일평	현 산 면	청동기 -삼국	길이10(소규모)	무문토기편,타날문토기편
백포리 두모①		신석기 -철기		즐문토기,무문토기,적갈색 연질토기
백포리 두모②				즐문토기,경질무문·적갈색 연질토기
백포리 두모③				즐문토기,무문토기,적갈색 연질토기
가차리 화내	송 지 면	철 기 , 삼국	길이20,너비1,두 께 얇음	경질무문토기, 회청색경 질토기
금강리 금강		철기		경질무문토기
미야리 미야		철 기 , 삼국	두께1, 양호	경질무문토기, 회청색경 질토기
미야리 영평		철기	길이5.6,두께0.2	경질무문토기
어란리 어불도		철기	길이200,너비5	경질무문토기
군곡리 방처		철기		경질무문토기 다량
군곡리		철 기 , 삼국	길 이 300 , 너 비 200	무문토기,경질무문·경질찰 문토기 ,타날문토기
군곡리 신정		철기		경질무문토기

2. 군곡리유적의 중요성

군곡리패총은 고 백포만 고대세력의 상징물과 같은 존재이다. 군곡리패총은 기원전 2·1세기부터 4세기전반까지 장기간 존속하였고, 국제적인 대외 교류의 거점 항구이다. 실제로, 1세기대의 중국 신나라(8-23년) 화폐인 貨泉이 출토된 바 있다. 또한, 중국계의 복골·골제 뒤꽂이·철기류, 일본계의 토기류·토제 곡옥 등이 출토되었다. 백포만이 사천 늑도·김해지역과 함

께 연안항로를 따라 중국-한국-일본을 잇는 문물교류의 거점항구였음을 알 수 있다. 백포만은 서해에서 남해로 꺾어지는 해로의 중요 지점에 위치하고, 고고학적으로 중요한 유적들이 확인되고 있어 3세기말에 신미국이 영산강유역 고대사회의 관문사회로 기능했을 가능성은 크다¹⁶⁾.



<그림 2> 해남 군곡리 유적의 공간 배치도(목포대학교박물관 2022)

군곡리유적의 중심연대는 기원전 1세기대부터 기원후 3세기대이다. 낙랑·대방군의 멸망과 군곡리 패총의 존속시기는 거의 일치한다. 이는 군곡리 패총의 전성기가 대외교류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관련 유물로서 뒷받침된다. 그리고, 군곡리유적 정상부인 ‘말매등’에는 기원전후한 시기에 향해의례, 해양제사와 관련된 환구와 거석기념물이 확인되어 신성한 공간이었음

16) 최성락, 「해남 백포만 일대의 선사유적」, 『최영희선생화갑기념한국사학논총』 (1987); 강봉룡, 「해남 백포만 고대 포구세력의 존재양태」.

을 알 수 있다. 군곡리유적의 중심시기와 달리 의례와 관련된 거석기념물과 대형 수혈건물지는 5세기대까지 존속한다¹⁷⁾. 비록 4세기(후반) 이후에 백포만의 중심이 내륙의 현산면으로 이동하지만, 신미국의 원향으로서 바다를 바라보는 군곡리 구릉은 상징적인 성소로 볼 수 있다.

당시의 생활유적은 구릉(말매등) 산자락에 자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즉, 기항과 관련된 부대시설, 숙박시설 등 관련자들의 생활공간이 주변에 있었을 것이다. 군곡리 구릉의 사면부에는 다양한 수공업(토기와 철기 생산)에 종사하는 집단이 체계적으로 들어섰을 것이다¹⁸⁾. 낙랑·대방군의 멸망 시점 이후인 4세기대에는 구릉 정상부에도 주거 공간이 들어선다¹⁹⁾. 4세기초를 경계로 그 이전에는 신성한 공간으로 취급되었다가 어느 시기에 공간에 대한 활용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의미이다. 군곡리 유적의 폐각층이 아주 넓고 두꺼울 뿐만 아니라 말매등 제의 공간 주변의 환구 부근에서 다수의 복골이 출토되는 뱃사람들이 다수 모이는 제의적 특수 공간을 상징하며 부대시설이 주변에 많았음을 의미한다(그림 2).

3. 고 백포만 일대의 읍락 형성

1) 고 백포만 연안의 읍락 형성

(1) 군곡리 일대 지식묘군의 분석 및 폐층의 형성 배경

송지면의 12개 리 단위에서 군곡리 주변에 지식묘군이 많다. 즉, 군곡리에 5개군 24기(6/5/5/4/4기)이고 미야리에 3개군 37기(4/28/5기), 가차리 화내 1개군 2기 등이다. 미야리 영평 ‘가’ 지식묘군(4기)도 군곡리로 넘어가는 ‘돌고개재’에 위치하여 군곡리 권역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송지면 가운데서 군곡리에 인구가 집중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시기가 중요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송지면의 지식묘는 현산면이나 화산면에 비해 전체 군집수나 개별 군집의 수가 적은 편이다. 이는 존속기간이 화산면이나 현산면에 비해 짧았음을 의미하고 시기적으로 늦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군곡리 일대의 개별 지식묘군의 수가 4~6기에 불과하여 지식묘군의 수나 개별 군집도가 화산면이나 현산면보

17) 목포대학교박물관, 「해남 군곡리 폐층 제8차 발굴조사 회의자료」 (2022).

18) 강귀형, 「군곡리폐층의 가치」, 『해남 현산에 깃든 마한 소국』 (전라남도·해남군·대한문화재단연구원, 2022), 52쪽.

19) 목포대학교박물관, 「해남 군곡리 폐층 제8차 발굴조사 회의자료」.

다 매우 약해 개별 지식묘군이 단기적으로 존속했음을 의미한다.

군곡리 패총을 중심으로 반경 1km 이내로 제한해 보면, 군곡리 군안·말매등·방치·현안·가차리 화내 지식묘 등이 있다. 각 군집이 모두 5기 이하로 존속기간이 길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처음부터 이곳에 중심 집단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후대에 필요에 의해 이동된 집단이 존재하되 그 시기가 늦은 시기이며 존속시기가 짧다는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해남군의 지식묘의 연대가 비교적 늦어 중심시기가 기원전 3~1세기에 해당하는데²⁰⁾, 그 중에서도 더 늦은 단계에 조성된 지식묘라면 백포만 내륙의 현산면이나 화산면에서 이주한 일부 세력에 의해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군곡리 패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군안골 지식묘군의 연대가 기원전후한 시기까지 내려온다는 점도 뒷받침 자료이다²¹⁾. 이는 군곡리 일대의 지식묘가 해남지역의 지식묘 가운데에서도 가장 늦은 단계임을 웅변한다.

그리고, 군곡리패총 인근의 군곡리 경모제·군안골·말매등·방치·미야리 영평 ‘가’ 등의 지식묘는 현산면·화산면의 대형 지식묘군에 비해 군집이 작고 상석의 크기가 중소형이어서 지식묘의 성행기가 끝날 무렵의 늦은 시기임을 시사한다.

고 백포만 연안의 군곡리 패총과 군곡리 말매등 지식묘군, 방치패총과 지식묘군, 화내패총과 지식묘군, 미야패총과 지식묘군 모두 패총 가장자리 혹은 패총 위에 지식묘가 배치된다. 군곡리 패총이 기원전후한 시기로 편년된 만큼 군곡리 인근의 패총과 지식묘는 거의 동시기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 따라서, 패총 조성시기의 묘제는 지식묘일 가능성이 높다²²⁾. 특히, 철기시대 패총 위에 지식묘가 자리한 군곡리 현안 지식묘는 이러한

20) 조진선, 「해남반도권 지식묘의 등장과 확산과정」 (2022).
21) 해남 군곡리 군안 지식묘 ‘가’군(김건수 외, 『해남 군곡리 패총 IV』) 3호 지식묘에서는 석관 내에서 삼각구연점토대토기 구연부편 3점이 출토되었다. 3호 지식묘의 석관은 할석형 관석으로 지상에 축조되었는데 조진선 분류 V기(조진선, 같은 논문, 54쪽)에 해당한다. 발굴조사 보고자는 점토대토기에 근거하여 기원전 2세기말~기원후 1세기후반으로 편년하고 있는데, 삼각구연점토대토기의 홀구연화가 뚜렷하여 늦은 단계로 파악되기에 기원후 1-2세기대까지 내려볼 수 있다(조진선, 같은 논문, 57~58쪽).
22) 조진선, 같은 논문.

추정을 뒷받침하는 자료이다.

정리해 보면, 고 백포만에서 지식묘 축조 이른 단계에는 송지면 및 군곡리 일대가 중심집단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해남지역에서 지식묘 축조 후기에 모종의 변화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즉, 패총이 조성되는 시기를 전후하여 군곡리 인근에 대외교류에 종사하는 유력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다. 내륙의 일부 유력세력이 기항지인 군곡리 일대로 이동하여 항시 활동에 종사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군곡리 일대의 지식묘 군이 밀집도가 낮으면서 시기가 늦다는 점과도 관련지어 볼 수 있다. 종래 지식묘 군집도가 낮던 송지면 일대에 갑자기 대규모 군곡리 패총이 조성된 것은 송지면 토착민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들다. 군곡리 일대에 교역의 증개지이자 중요한 기항지가 형성됨에 따라 종래 유력 세력이었던 백포만 내륙의 현산면 일대의 지식묘 세력이 관심을 가졌을 것이다.

해남반도 지식묘의 전파방향이 내륙에서 해안가로 이동했고, 군곡리 인근 지식묘가 비교적 늦은 단계에 소군집으로 분포하고 있으므로²³⁾, 군곡리패총 일대 집단은 지식묘 늦은 단계에 내륙 즉 현산면 일대에서 일부 사람들이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하여, 원삼국시대 패총 형성시기는 한반도에서 철기문화가 유입되는 시점과 비슷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중국과 일본으로 연결되는 해로를 통한 해상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해안지역에 인구가 증가하고 자연스럽게 해양 자원 취득으로 이어져 패총이 형성된 것으로 본 견해는 참고할 만하다²⁴⁾.

이처럼, 기원전 1세기대를 전후하여 중국(한사군)과 연결되는 해로 발달과 신문화 유입이 잇따른다. 내륙 집단의 해안변으로의 이동이 있었을 것이고, 어로와 많은 패총이 형성된다.

같은 맥락에서, 내륙에서 해안가로 중심세력이 이동한 사례로 보성 조성리유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성 조성리 환호취락은 많은 주거지와 환

23) 조진선, 같은 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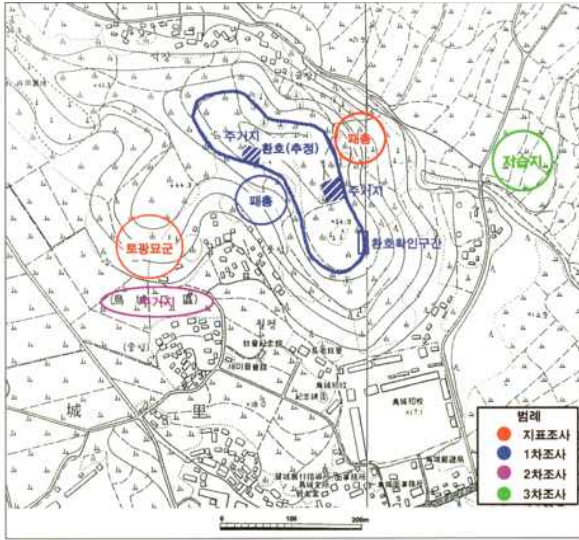
24) 최성락·김건수, 「철기시대 패총의 형성배경」, 『호남고고학보』, 24(2002).

호, 패총, 목관묘(추정) 등이 확인된 읍락 규모 이상의 핵심취락으로 추정된다(그림 3~4, 이동희 2011). 해안가에 가까운 조성리 일대에는 기원전후한 시기에 환호, 패총 등이 출현하기 전에는 지석묘 군집이 빈약한 지역이었다. 지석묘는 조성리유적보다 내륙에서 다수 확인된다. 이는 조성리유적 주변에 지석묘문화가 빈약하다가 환호·패총이 조성되는 기원전후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군곡리유적을 운영한 세력은 군곡리 자체성장으로 보기는 어렵다. 군곡리 인근의 지석묘가 늦은 시기에 단기간 조성된 것으로 파악되므로, 주변 유력세력인 현산면의 고헌리·읍호리·황산리세력의 일부가 이동해서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림 3> 보성 조성면 지석묘(1~13) 및 조성리 환호취락(14)(이동희 2011)



<그림 4> 보성 조성리 유적 (추정)배치도(이동희 2011)

(2) 고 백포만 연안의 읍락의 범위와 관련 유적

백포만에는 군곡리 패총 이외에도 유사한 성격의 대소 취락들이 부채꼴의 형상으로 들어서 있다²⁵⁾. 즉, 백포만에 연결한 현산천하류에는 군곡리를 중심으로 반경 3km 이내에 패총, 지식묘, 유물산포지가 10여개소가 확인된다. 유물산포지는 월강, 현안, 방치, 화내, 영평마을에 분포하는데 모두 경질무문토기가 출토되었는데 생활유적이거나 분묘유적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군곡리 패총 북쪽의 월강, 현안, 방치 마을에는 넓은 유물산포지로 취락의 규모가 백포만 연안에서는 가장 크다. 패총은 군곡·방치·신정·월강·두모마을에서, 주변에는 유물산포지가 위치하여 생활과 폐기가 한 공간에서 확인된다. 지식묘는 패총·유물산포지 주변에 분포하거나 내륙으로 들어간 산사면 끝자락에 위치한다. 이들을 하나의 주거단위로 본다면 10여개 이상의 주거군이 확인되는 셈이다. 이를 백포만 연안에 해당하는 화산면의 부길리·방축리유적까지 연결해 볼 수 있다. 이처럼, 백포만 연안에는 10개소 이상의 주거군이 밀집하고 각각의 주거군에는 패총·지식묘를 포함하고 있어 읍락 수준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중심에는 군곡리유적이 자리한다²⁶⁾. 읍락은 핵심취락과 주변취락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백포만

25) 김건수 외, 『해남 군곡리 패총 IV』 .

연안에서는 군곡리유적(핵심취락)과 주변 취락과의 관계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읍락의 규모를 직경 6~7km 내외로 설정할 수 있다면²⁷⁾, 군곡리유적을 중심으로 백포만 연안을 하나의 읍락으로 볼 수 있다.

군곡리유적과 같은 유력 패총마을은 일반 취락과 달리 정치·경제·군사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하는 곳이다. 이 가운데는 국읍 또는 읍락의 중심취락도 있을 것이고 수로교통을 연결하는 포구로서 그리고 해역감시기지로서 그 중요성이 부각된 곳도 있다. 그러므로 패총마을에는 지배계층을 비롯하여 선박관리와 운항, 교역품 관리 등 전문기술을 가진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었을 것이며 일반취락과 달리 생업활동의 형태도 다양했을 것이다²⁸⁾.

이렇듯, 기원전 1세기대 이후 백포만에서 군곡리를 중심으로 다수의 패총마을의 형성은 해안가에 새로이 형성된 중심지 즉, 신도시로 볼 수도 있다. 거점 기항지로서 교역을 통해 성장한 군곡리유적은 여러 패총마을을 통괄하는 상위 핵심 취락이라고 볼 수 있다. 핵심취락과 다수의 주변 패총마을의 조합이 바로 새로운 읍락이자 정치체의 면모라고 볼 수 있다.

백포만 일대에 다수의 패총마을의 분포는 교역과 어로를 위해 주변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북적였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중심마을인 군곡리 유적의 구릉 정상부인 ‘말매등’에는 해양안전을 기원하는 의례 공간이 만들어져 환구와 거석기념물 등이 확인된다. 당시 특징적인 외래계 유물로 보면 종래 지식묘를 축조하던 농경사회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새로운 물질문화와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즉, 군곡리패총에서는 유리옥 거푸집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유리제작 기술이 정착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패총에서 출토되는 다량의 토제곡옥, 환

26) 정 일, 「해남지역 마한 취락의 특징과 변화」, 『백제학보』, 26(2018), 94쪽.

27) 권오영, 「三韓의 ‘國’에 대한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28) 이현혜, 「김해지역의 고대 취락과 성」, 『한국고대사논총』, 8(1996), 171쪽.

옥, 골제장신구는 당시 집단에게 장신구의 수요가 높았음을 말해준다. 당시 집단내부의 수요에 맞추어 장신구로서의 우위의 가치를 지닌 유리제작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던 것이다. 군곡리 패총에서는 재사용이 가능한 철도자, 철제 낚시, 철부 등도 폐기되었다. 이는 철기제작과 사용에 있어 제약이 크지 않았고, 다수의 도자병이 나타나는 것은 철기 제작에 필요한 소재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는 여건이었음을 시사한다²⁹⁾.

요컨대, 군곡리 일대를 중심으로 패총마을들이 새로이 조성되어 신도시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새로운 패총마을의 주축은 백포만 내륙의 현산면 일대에서 이동한 일부 지식묘 축조세력이었겠지만, 거점항구에 인근 주민·외지인·외국인 등이 모여들었을 것이다.

2) 고 백포만 내륙의 읍락

기존에 백포만에서 대표적인 유적인 군곡리 유적과 황산리 분토유적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인식하는 측면이 강하다. 즉, 해남 군곡리 유적은 백포만 연안의 기항지이자 국제적인 항구도시로서 지속되었고, 조금 더 내륙에 자리한 분토 유적은 백포만의 활발한 교역으로 파생되는 경제적 효과를 받아 군곡리의 배후취락으로서 크게 성장한다는 것이다³⁰⁾.

이러한 관점은 일견 일리가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송지면 군곡리 유적과 함께 거의 동시기에 백포만 내륙의 유력세력은 현산면 황산리 분토유적이다. 즉, 백포만에서 군곡리유적은 해안가에, 황산리 분토유적은 백포만의 내륙에 각기 자리하여 입지상의 차별성이 있다. 군곡리유적과 분토유적 간의 직선거리는 약 5km이다.

삼국시대의 분토유적에서는 3~5세기대의 주거지 53기, 용관묘(6기)·토광묘(5기)·석곽묘(9기)·석실분(2기)·고분(7기) 등 3~6세기의 고분이 다수 조사된 바 있다³¹⁾.

29) 이정호, 「해남 군곡리 패총을 통해 본 대외교류」, 『군곡리 패총, 동아시아 해양교류의 시작』 (목포대학교박물관, 2019), 268쪽.

30) 정 일, 「해남지역 마한 취락의 특징과 변화」, 86쪽.

31) 이정호, 「만의총고분과 고대사회의 동향」, 『해남 옥천 만의총고분 국제학술대회』 (전라남도·해남군, 2013), 39쪽.

현재까지의 조사성과로는, 분토 취락은 청동기시대 늦은 단계부터 송국리형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지속되고, 3세기 중엽경부터 본격적으로 현산면의 중심취락으로 기능한다. 즉, 3세기 중엽을 기점으로 4세기 중후반대까지 백포만의 중심 취락은 현산천 내륙으로 확대되는데 황산리 분토 취락의 성장과 관련된다³²⁾. 4세기 이후 백포만 내륙에 위치한 분토 취락의 상대적인 급성장은 4세기초 낙랑·대방군의 소멸로 인한 군곡리세력의 쇠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분토 나-2·3호 토광묘³³⁾에서는 철검·경질무문토기가 출토되어 상한을 2세기대까지 소급해 볼 수 있어 군곡리 집단과 비교하여 거의 비슷한 시기에 유력세력이 자리잡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로서는 군곡리 일대에 기원후 2세기대의 토광묘가 조사된 바 없다.

한편, 황산리 분토유적과 인접한 현산면 일평리 성지 하층 시굴조사³⁴⁾에서 환호로 추정되는 유구가 확인되어 일평리 일대는 군곡리유적과 거의 동시기에 거점취락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일평리와 고현리 일대에는 넓은 층적지가 형성되어 연안 항로에서 벗어난 내륙 중심지로 중핵지역으로 볼 수 있다³⁵⁾.

백포만 내륙에서 군곡리 유적 단계의 환호취락이 확인됨은 군곡리와 동시기에 별도의 읍락의 존재를 시사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백포만 내륙에 위치하는 현산면 일대는 청동기시대(후기)부터 많은 지식묘가 확인되어 백포만에서 넓은 층적지가 있는 농경의 중심지였다.

이러한 점에서, 분토유적 일대를 중심으로 한 현산면 일대는 군곡리 유적을 중심으로 한 백포만 연안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도 별도의 읍락으로 볼 수 있다.

32) 조성희, 「황산리 분토 유적 가치」, 『해남 현산에 깃든 마한 소국』 (전라남도·해남군·대한문화재단연구원, 2022), 124~127쪽.

33) 전남문화재단연구원, 『해남 황산리 분토유적Ⅱ』 (2009).

34) 전남문화재단연구소, 『해남 일평리성지(죽금성) 문화재학술조사(시굴조사) 약식보고서』 (2016).

35) 정 일, 「해남 읍호리 고담·읍호 고분 실체」, 『해남 현산에 깃든 마한 소국』 (전라남도·해남군·대한문화재단연구원, 2022), 112~113쪽.

요컨대, 중요 기항지와 대외교역 창구로 새로운 중심지가 된 백포만 입구와 별도로, 청동기시대 이래 농경에 종사하면서 종래 지식묘군을 축조하던 현산면 내륙에도 하나의 중심지를 상정할 수 있다. 이곳에는 황산리 분토유적을 중심으로 다수의 주거지가 확인되며 백포만 일대가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외부 문물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특히, 기원후 2세기대 철검 등의 외래계 유물이 부장된 황산리 분토 토광묘가 주목된다. 향후 조사성과가 뒤따라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기원후 2세기대의 수장묘는 백포만 해안이 아니라 오히려 내륙에서 확인되는 것은 백포만 내륙의 유력 세력을 상정하게 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IV. 고고자료로 본 신미국의 기원

1. 군곡리 유적 내 거석기념물과 구(溝)의 성격

군곡리 유적의 중심에 자리한 거석기념물은 유적에서 가장 높은 지점인 해발 27m에 위치한다. 큰 돌을 엮고, 2~3m 간격을 두고 작은 암석 4개를 호상으로 돌린 구조이다. 구릉 중앙은 거석을 중심으로 일종의 ‘공터’와 같은 공간이 유지되었다(그림 2). 거석과 공터 바깥으로만 주거지가 밀도 높게 들어서 있어 거석기념물에 부여된 상징적 의미가 장기간 지속되었음을 의미한다. 기원전후 시기에 조영된 것으로 보이는 거석기념물로부터 남쪽에는 5세기대의 제의 관련 대형의 수혈건물지가 확인되어 장기간 신성한 공간으로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구릉 정상부의 거석기념물에서 일정한 거리를 둔 7부 능선에 溝가 설치되어 있다³⁶⁾.

그런데, 구 주변에 잔존하는 주거지가 3세기 이후에 해당하므로 기원전후한 시기의 溝는 방어용(환호)이 아니라 의례용(환구)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구 내부에서 동시기의 방어가 필요한 다수의 주거지는 보이지 않는다. 도랑의 내부 중앙을 공지로 비워놓은 점, 구릉 정상부 평탄대지에 다수의 주혈군이 군집하고 있어 방어용의 환호보다는 의례용의 환구로 보아야 한다. 도랑은 신성한 의례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내·외부를 차폐시켜 구릉의 7부 능선을 따라 두른 환구이며 의례 공간을 경계짓는 기능으로 볼 수 있다³⁷⁾.

36) 목포대학교박물관, 「해남 군곡리 패총 제8차 발굴조사 회의자료」.

37) 한옥민, 「현산 일원의 마한 입주 의례」, 『해남 현산에 깃든 마한 소

또한, 환구층에서는 기원전후한 시기의 유물이 다량 발견되었지만 생활유구가 없다. 더구나 재층과 폐기수혈이 주변에 많다는 것은 제의 후의 폐기 행위와 관련될 것이다. 패각층은 4세기초에 점차 사라지고, 환구 주변에는 4세기대 주거지가 다수 확인되는 것은 낙랑·대방군의 소멸에 따른 항해제사의 쇠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낙랑군 설치 이후 활발했던 해남 군곡리유적의 기항지 역할이 한사군의 해체로 교역의 축이 흔들리면서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군곡리 유적에서도 큰 변화를 초래한다. 중요한 기항지인 백포만을 거쳐 가던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면서 군곡리 정상부의 말매등의 제의 공간이 약화되면서 그곳에 일반 주거 공간이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기원전 1세기대에 조영된 환구는 기원후 1세기 어느 시기에 매몰되고 있지만 토제곡옥이나 복골 등 제의 유물이 IV·V기층(2~3세기)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는 처음 환구가 의례공간에 대한 구획의 의미로 조성되고 서서히 매몰되었지만, 구릉 정상부는 한동안 제의 공간으로 활용되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군곡리 1~3차 발굴조사에서 모두 23점의 복골이 출토되었다. II기층(4점), III기층(12점), IV기층(4점), V기층(3점)에서 각기 출토되었는데 기원전 1세기부터 기원후 3세기대가 중심시기이다³⁸⁾. 그리고 6차발굴조사시에만 18점의 복골이 출토되었는데, 대부분 환구층에서 확인되어³⁹⁾ 제의적 요소가 강함을 시사한다.

이는 조사단에서 주장하듯이, 군곡리패총이 가장 활발하게 조성된 중심연대가 기원전 1세기경부터 기원후 2·3세기경으로 보는 것⁴⁰⁾과 같은 맥락인데 이 시기는 제의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졌고 백포만이 해양 교통의 거점으로 성행한 시기이다. 발굴조사가 상대적으로 빈약한 군곡리패총에서 발견된 복골이 상대적으로 발굴조사가 많이 이루어진 사천 늑도유적과 비교될 수 있는 수량이라는 점⁴¹⁾에서 군곡리유적의 제의적 성격을 유추할

국』(전라남도·해남군·대한문화재단연구원, 2022), 261~262쪽.

38) 최성락, 『한국 원삼국문화의 연구』(서울: 학연문화사, 1993), 214~221쪽.

39) 목포대학교박물관, 『해남 군곡리패총 V』(2021).

40) 최성락·김영훈, 「해남 군곡리 패총의 위상과 역할」, 283쪽.

수 있다.

늑도유적은 철기문화와 대외교역이 발전하면서 기항과 항해제사를 위해 船人들이 모여들고 그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상공업과 부대활동이 이루어지면서 대규모 취락이 번성한 독특한 유적이다⁴²⁾. 늑도유적과 같은 맥락에서, 천혜의 기항지인 군곡리 일원의 백포만도 대외교역이 활발해지면서 기항과 항해제사를 위해 船人들이 모여들고 부대시설이 들어섰을 것이다.

그런데, 군곡리유적의 환구는 구야국의 핵심취락인 김해 봉황동유적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봉황동유적에서는 2條의 溝가 확인된다. 즉, 구릉 정상부 가까이에서 좁은 범위를 둘러싸는 구는 깊이가 상대적으로 얇고, 또 다른 구는 구릉 하단부를 따라 봉황대를 넓게 감싸고 돈다. 후자는 깊이도 깊고 바닥이 단면 V자형이며 내부 퇴적토에서는 점토대토기가 출토된다. 위쪽을 감싸는 구는 구릉 정상부를 상징적 의미로 감싸는 시설물(환구)이고, 구릉 하단을 감싸는 환호시설은 방어적 측면을 상징할 수 있다. 2조의 환구 혹은 환호시설은 점토대토기 단계부터 최소한 상징적인 측면에서라도 고 김해만 정치체의 중심구역으로 인정되어 왔을 것이다⁴³⁾.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군곡리유적에서도 이중 환호가 발견될 가능성도 있다. 즉, 현재 확인된 제의적 기능의 환구 외에 더 하단에서 확인될 수 있는 방어적 기능의 환호로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이다. 향후 조사성과를 기대한다.

2. 군곡리유적의 의례 유구로 본 정치체의 기원

상기한 바와 같이, 군곡리유적의 환구는 집단의 안녕과 항해의 안전을 기원하는 신성한 제의 공간을 보호하는 구획의 의미가 더 컸을 것이다. 구의 기능이 의례적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제의를 주관하는 핵심취락의 등장을 의미한다. 즉, 이러한 거석기념물과 환구의 기능이 의례라고 하더라도 환구 설치 및 의례를 주관하는 주체가 있고 그를 추종하는 주변 촌락을 상징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군곡리 핵심취락과 함께 백포만 연안

41) 최성락·김영훈, 「해남 군곡리 패총의 위상과 역할」, 290~291쪽.

42) 이재현, 「늑도 유적의 성격과 사회 구조」, 『늑도와 하루노즈지를 통해 본 동아시아 교류의 양상』(2016 특별전 <국제무역항 늑도와 하루노즈지> 연계 학술심포지움)(국립진주박물관, 2016), 30~42쪽.

43) 이성주, 「국읍으로서의 봉황동유적」, 인제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편, 『김해 봉황동유적과 고대 동아시아-가야 왕성을 탐구하다.-』(서울: 주류성, 2018), 86쪽.

의 중소규모의 패총유적(일반 촌락)들의 유기적인 조합상은 읍락의 출현을 시사한다. 이러한 사회 변동에는 기원전 1세기대에 낙랑군 등과 교류하면서 선진적인 정치체로부터 자극받은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군곡리 유적 주변에 중소규모의 늦은 단계 지식묘가 주로 조영된다는 것은 기원전후한 시기에 백포만 내륙지역의 유력세력의 일부가 군곡리 포구로 이동해 이 포구를 관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례의 중심지와 정치적 중심지는 상당한 연관성을 갖는다⁴⁴⁾는 점에서 초기 정치체인 읍락이 형성되고, 나아가 소국 형성의 기반이 마련되는 가시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다. 즉, 거석기념물과 환구의 존재는 의례의 중심이면서 정치적 행위의 시원적인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고 邑落 단위 정치체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V. 향시국가 신미제국의 흥망성쇠

1. 향시국가론으로 본 신미제국⁴⁵⁾

1) 향시의 발전단계와 늑도, 김해, 그리고 군곡리유적

향시의 발전단계는 교역장->향시->향시국가의 순으로 볼 수 있다. 교역장, 향시, 향시국가의 개념과 발전단계에 대해서는 다음의 견해를 참고해 보기로 한다.

“인천의 영종도, 사천 늑도와 같이 규모가 크지 않고 인구도 적은 섬에서 원거리를 이동해온 물품이 많이 발견될 경우 이 섬에서 이루어지던 원거리 교역을 상정할 수 있다. 이 지역은 교역장으로 인정된다. 그런데 포구·향구·향만뿐만 아니라 내륙쪽으로 농경, 금속기 등의 생산기반이 이어질 경우에는 적극적인 의미의 향시로 규정할 수 있다. 해남 군곡리, 김해, 후쿠오카, 오사카, 이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자체적인 농경기반을 갖춘 이키는 향시에, 그렇지 못한 쓰시마는 교역장에 가까울 것이다⁴⁶⁾.”

44) 이성주, 「국읍으로서의 봉황동유적」, 91쪽.

45) 본 절을 작성함에 있어 필자의 글(이동희, 「고성 내산리 집단의 성격과 포상팔국」, 146~155쪽)을 일부 인용하였음을 밝혀둔다.

46) 권오영, 「고대 동아시아의 향시국가와 김해」, 인제대학교 가야문화연구 소 편, 『가야인의 불교와 사상』 (서울: 주류성, 2017), 270~273쪽.

상기 견해를 농도와 군곡리 유적에 적용하면 백포만 내륙에 농경기반을 갖춘 군곡리유적 일대는 향시에, 그렇지 못한 농도는 교역장으로 정의할 수 있다. 백포만 내륙에는 농경사회에 바탕을 두고 지식묘의 밀집도가 해남반도에서도 가장 높아 인구가 밀집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향시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성과 개방성이다. 다양한 문화적, 종족적 전통을 가진 상인과 선원들이 모여들면서 향시에서는 이질적인 문화가 공존하고 때로는 융합되어 혼종문화가 나타난다. 김해지역은 중국과 일본열도의 물품이 많이 수입되고 소비된다. 김해지역의 이러한 양상은 단순한 海村이 아니라 본격적인 향시임을 시사한다. 김해 일원에서 다수 발견되는 외래 기성품, 봉황동과 관동리의 선착장, 부산-김해 일원의 왜인의 집단 거주지 등은 김해를 중심으로 원거리 교역행위가 활발히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에서 김해는 동북아의 대표적 향시이다. 구야국에서 금관가야로의 전환은 향시에서 향시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전형적인 향시는 항구만으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배후에 생산 및 채집의 기지를 둔다는 점에서 철의 생산, 철의 채집 등 다양한 생산활동의 공간을 찾아야 할 것이다. 향시국가를 구성한 향시들은 농업에 기반한 국가처럼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다. 향시국가 내에서 향시간 주도권의 이동이 자주 발생한다. 해안가에 위치한 여러 향시국가 간에도 협조와 경쟁, 동맹과 반목이 빈발한다. 남해안에 소재한 여러 소국 간의 분쟁을 기록한 ‘포상팔국의 난’ 등은 전형적인 향시국가 간 분쟁의 모습이다⁴⁷⁾.” 따라서, 김해를 중심으로 경남 동남부 해안권의 금관가야연맹체, 경남 서남부 해안을 중심으로 형성된 포상팔국은 개별 향시국가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견해를 참고하면, 교역장은 기원전 1세기대를 중심으로 한 사천 농도가 대표적이며, 3세기 무렵까지 고성 동의동유적을 중심으로 한 고자국, 김해 구야국 등은 개별 향시로 볼 수 있다. 3세기말 금관가야연맹체의 성립은 향시국가로의 전환으로 볼 수 있다. 즉, 여러 향시가 모여 연맹왕국을 성립한 경우로서 김해를 중심으로 부산·진영 일대를 통할하는 상위개념으로 초기국가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구야국에서 금관가야로의 전환은 여러 소국을 아우르는 연맹체 단계(상하연맹)로의 진입과 관련된

47) 권오영, 같은 책, 270~273쪽.

다⁴⁸⁾.

이 무렵 금관가야연맹체를 중심으로 대외교역권을 독점하는 시점에 경남 서남부지역 항시 연합체가 반발한 것이 포상팔국전쟁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단계에 경남 서남부지역 항시연맹체는 독자적인 토기문화나 대형 목곽묘가 없는 상대적으로 빈약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이해관계에 의해 연결된 항시 연합세력이었을 것이다. 즉, 이 무렵에 금관가야연맹체에서 확인되는 금관가야양식 토기와 같은 문화적 동질성은 보이지 않는다. 5세기대의 소가야연맹체도 횡적인 연맹체인 것을 감안하면, 소가야연맹체의 전신인 3세기말·4세기초의 포상팔국 연맹체는 일시적인 연합으로 정치적인 면보다도 경제적인 공동체로 보아야 한다⁴⁹⁾. 같은 맥락에서, 영산강유역을 포함하는 3세기 후반대의 신미제국(新彌諸國)도 포상팔국 연맹체와 같이 경제적인 공동체 성격이 강할 것이다.

2) 항시, 항시국가 그리고 신미제국(新彌諸國)

“港市(Port City)는 풍랑을 피하고 순풍을 기다리며 화물을 집산하고 물과 식량을 공급받는 등 다양한 기능을 담당한다. 항시국가는 복수의 항시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구성된 항시 연합 정치체이다. 항시국가 내에서 중심적인 위상을 점하는 항시가 변화하듯이 항시국가 사이의 우열관계도 뒤바뀌게 된다. 거래되는 물품의 변화, 선박 제조술과 항해술의 발달에 의한 항로의 변화, 항해시점과 기간의 변화 등도 중요한 변수이다⁵⁰⁾.”

신미제국의 공간적 범위는 대개 전남 서남해안을 포함한 영산강유역으로 보고 있다. 신미제국의 대표격인 신미국의 고토로 추정되는 백포만의 군곡리유적은 서남해 해양세력과 내륙세력을 연결하는 주요 기항지이다.

고대사회에 있어 영산강유역은 영산 내해가 존재하였고 비교적 쉽게 배가 왕래하였다. 영산강 내의 가항수로는 나주 노안 일대를 상회하여 그보다 약 7km 상류의 황룡강과 영산강 본류가 합류하는 광주 서창일대로 추정

48) 이동희, 「고 김해만 정치체의 형성과정과 수장층의 출현」, 『영남고고학』, 85(2019).

49) 이동희, 「고성 내산리 집단의 성격과 포상팔국」, 『영남고고학』, 91(2021), 146~155쪽.

50) 권오영, 「고대 동아시아의 항시국가와 김해」, 250~254쪽.

할 수 있다. 서창 일대가 주목되는 것은 광주 복룡동과 평동 유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⁵¹⁾. 복룡동유적에서는 중국 화폐인 화천과 오수전이, 평동유적에서는 일본 야요이계 토기가 각기 출토되었다.

이처럼, 고대사회에 영산강 중·상류지역까지 가항수로었다고 본다면 당시 영산강유역을 포함하여 항시와 항시를 연결하는 교역망이 형성되었고 그 관문(gateway) 역할을 한 것이 신미국이고 그래서 ‘신미제국’이라고 불리워졌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군곡리유적으로 대표되는 백포만 세력은 여러 항시들의 연합세력인 신미제국을 대표하는 ‘항시국가’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신미국이 당시 영산강유역 일대에서 가장 우월한 국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예컨대, 기원전후한 시기에는 영산강 내해의 나주 구기촌세력이 묘제나 유물상으로 보면 당시 영산강유역을 포함한 전남지역에서 가장 선진적인 집단이면서 우월한 정치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견해는 주목된다. 즉, “신미국은 개별소국으로서 연맹체의 맹주 역할을 했기 때문에 신미제국으로 표현되었을 것이다. 이때의 맹주는 세력의 우월성보다는 교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느냐가 기준이 되었다. 3세기 신미국 단계에 중국과의 교류라는 목적을 위해 신미제국이라는 연맹체를 구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국 사이의 관계는 수평적 관계였을 것이다. 3세기 단계에 신미국 관련 고고자료가 희소하고 해남 안호리·석호리유적에서 3세기 후반의 약간의 단서는 있으나 맹주국의 증거로 보기는 미흡하다⁵²⁾.”

2. 3~4세기대 신미국(침미다례)의 고고학적 증거

동일지역 정치체로 생각되는 신미국과 침미다례는 3세기와 4세기 단계로 구분된다. 3세기 단계에는 국과 국 사이의 관계도 수평적인 연결관계였으며 국읍과 읍락사이의 관계도 상하관계가 아니어서 국읍의 主帥와 읍락의 渠帥의 관계도 동질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4세기에 들어서 읍락 중에서

51) 박충원, 「화천을 통한 영산강 내륙 교역 가설 검토」, 『군곡리 패총, 동아시아 해양교류의 시각』 (목포대학교박물관, 2019), 96~97쪽.

52) 김영심, 「해남지역 정치체의 성격과 지배구조」, 『해남 현산에 깃든 마한 소국』 (전라남도·해남군·대한문화재단연구원, 2022), 197~202쪽,

중심이 되는 읍락의 성장이 두드러지면서 내부에서 상하관계가 생기고 이들을 중심으로 내부 통치가 이루어지며 백제에서는 이 국들의 성장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지배질서 내에 편입시키는 방법을 모색해 갔을 것이다⁵³⁾.

이러한 문헌사의 연구성과를 고고학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백포만 해안의 안호리·석호리에서 3세기후반~4세기중엽의 대규모 고분군(제형분 57기)이 확인되었는데, 이 고분군이 도로 구간만 조사된 제한성이 있고 주변으로 고분들이 계속 연장되고 있어 1~2개 촌락의 무덤으로 보기는 너무 광범위하다. 따라서, 이 고분군은 군곡리집단이 포함됨⁵⁴⁾ 邑落 단위의 공동묘지일 가능성이 있다. 이는 신미국(침미다례)의 전성기(3~4세기 중엽)에는 읍락단위의 공동묘지 공간이 정해져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 더구나, 군곡리유적에서 3세기후반~4세기대에 주거지가 성행하고 있어 안호리·석호리유적의 고분군과 시기적으로 부합한다.

이와 같이, 안호리·석호리 유적은 백포만 초입부에 위치한 대규모 공동묘지로 영산강유역의 묘제를 따르면서도 지역 양식인 ‘해남식 옹관’이 중심 매장시설에서 확인되어 주목된다. ‘해남식 옹관’은 4세기대, 특히 4세기 중후엽을 중심으로 해남지역에서 주로 확인된다(그림 5). 즉, 이 옹관은 경부가 없이 ‘U’자형이고 평저형, 바닥에 원공을 뚫은 유공식, 크기의 대형화 등이 특징이다. 대옹을 관으로 사용할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제작하면서도 합구시킬 대옹의 하나에는 구멍을 뚫어 소성한 것이다. 해남식 옹관이 중심매장시설에 쓰이고 독특한 지역양식을 갖춘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용 집단의 정체성 및 집단의 차별화를 표현한 양식일 가능성이 높다⁵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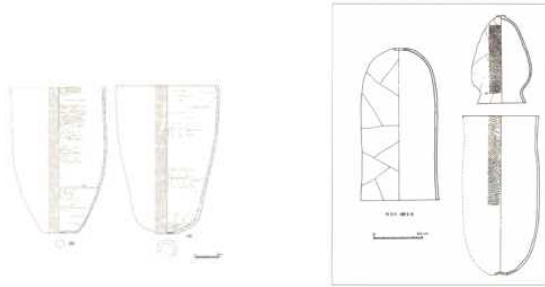
해남식 옹관은 삼산면 농암·신금, 화산면 부길리 유적 등지에서도 확인되었다. 해남식 옹관은 영산강 중하류 지역에서 5세기 중엽 이후에 등장하는 U자 모양 옹관형식과 유사한 외형이다. 영산강 중하류지역의 옹관은

53) 김영심, 같은 책, 202쪽.

54) 임지나, 「안호리·석호리유적 피장자 성격」, 『해남 현산에 깃든 마한 소국』 (전라남도·해남군·대한문화재단연구원, 2022).

55) 한옥민, 「종합고찰 II. 유물 검토」, 『해남 안호리·석호리유적』 (대한문화재단연구원, 2019), 403~416쪽.

기벽이 두텁고 주둥이로 올라 갈수록 보다 두꺼워지는데 반해 해남지역
옹관은 기벽이 얇고 주둥이까지 변화가 거의 없으며 소성도가 낮아서 경



<그림 5>해남식 옹관[안호리·석호리(左,임지나 2022), 농암3호 및
신금(右,국립광주박물관 1989)]

질화된 옹관은 확인되지 않는 차이점이 있다. 해남식 옹관의 등장 시점은
4세기 전반대로 볼 수 있다. 영산강 중하류 지역의 U자 모양 옹관은 5세
기대 이후에 등장한다는 것이 중론이어서 이러한 형태의 옹관이 먼저 등
장한 것은 해남지역이다⁵⁶⁾.

석호리 옹관의 상한을 4세기 전반대로 본다면, 백포만에서 성립한 ‘해남식
옹관’이 삼산천 유역권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4세기 후반 이전에 해남식
옹관의 범위는 백포만 뿐만 아니라 삼산천유역의 해남만까지 포괄하여 당
시 신미국 혹은 침미다례의 영향력이 적어도 백포만을 벗어나 해남만까지
미쳤음을 알 수 있다.

4세기 후반대에 침미다례가 백제의 공격을 받았다는 것은 그 이전에 신미
국이 급성장했음을 반증하는 것이고, 그러한 신미국 성장의 고고학적 증
거가 U자 모양 전용 옹관의 등장이라고 볼 수 있다.

해남식 옹관의 시작(4세기 전반)과 그 분포권이 백포만을 벗어나 별개 읍
락인 삼산천유역권까지 이어지고 있어 4세기대 당시 신미국(침미다례)의
국읍과 읍락을 유추해 볼 수 있다.

56) 이정호, 「해남지역의 고대 문화유산 개관」, 『해남 현산에 깃든 마한
소국』 (전라남도·해남군·대한문화재연구원, 2022), 16~17쪽.

이렇듯, 4세기대에 해남식 옹관의 확산 배경에는 당시 백제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백포만 일대를 근거지로 한 침미다례(신미국)를 중심으로 결집이 강화되었을 것이고, 여기에 삼산천 일대의 신금고분·시등고분군·농암고분군 등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⁵⁷⁾.

백포만을 벗어난 정치적 영향력 확대의 고고학적 증거를 ‘해남식 옹관’으로 볼 수 있다면, 3세기와 달리 4세기대에 이르면 해남 일대는 당시 해양 교역의 중심지로서 가장 선진지역임을 의미한다. 이는 경남 동남부지역에서 항시국가의 중심인 김해지역에서 가야지역에서는 최초로 3세기말에 금관가야양식의 토기가 가장 먼저 등장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즉, 양 지역은 외래 선진 문물의 집하지이자 그 영향을 받아 새로이 창안된 토기와 옹관 양식이 최초로 등장하였음을 의미한다. 4세기대 당시 김해와 해남은 남해안의 거점 항구로서 외래 문물이 지속적으로 유입됨으로써 가장 선진적인 토기문화를 발전시키고 향유한 셈이다. 항시국가의 관문에서 부(富)와 권력을 표현한 여러 방법이 있었겠지만, 현재 가시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새로운 토기양식의 창안 혹은 내세와 관련된 새로운 양식인 전용 옹관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다.

해남의 옹관고분은 백포만의 현산천유역과 해남만의 삼산천유역에서 주로 확인되고 내륙의 옥천천유역과 동부권인 북일면 일대에는 확인된 바가 없다. 문헌에서 보이는 3세기후반의 신미국이나 4세기후반의 침미다례의 중심지는 현재로서는 해남 옹관고분의 최대밀집지인 현산천유역의 황산리 분토와 안호리·석호리 일대와 관련지어 볼 수 있다⁵⁸⁾.

한편, 신미국·침미다례가 3~4세기대에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 것은 철정과 같은 철기의 확보 및 유통으로도 뒷받침된다. 즉, 해남지역에서는 3세기후반~4세기전엽부터 철정이 부장되기 시작한다. 길이 30.7cm의 대형 철정이 현산면 황산리 분토 1-1호 도광묘에서 출토되었는데, 판상철부형 철정은 낙동강 하류역의 3~4세기 고분에 많이 부장된다. 분토유적 출토

57) 김영심, 「해남지역 정치체의 성격과 지배구조」, 202쪽.

58) 강봉룡, 「『마한역사문화권』에서 해남 고대역사문화의 위치」, 『해남 현산에 깃든 마한 소국』 (전라남도·해남군·대한문화재단연구원, 2022), 177~178쪽.

품은 300년 전후 낙동강 하류역과의 교류를 용변하는 자료이다. 4세기 이후에는 삼산천, 화산면, 현산천유역에서 철정 부장이 유행한다. 이를테면, 부길리 옹관에서는 4점, 황산리 분토 고분군에서는 3기의 토광묘에서 5점, 농암·신금 옹관에서는 중형의 철정이 2점씩 부장된다. 철정은 남해안·서해안을 통한 광역적인 지역집단 간 교류와 이를 통해 입수한 철기 등의 지역집단 내 유통에서 우위를 장악한 피장자를 상징하는 물건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⁵⁹⁾.

요컨대, 3세기후엽까지 신미국은 백포만을 중심으로 성장하였고⁶⁰⁾, 4세기 이후 해남식 옹관 및 철정 부장의 분포권으로 보면 백포만을 넘어 삼산천유역 등지까지 신미국의 영역 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해남식 옹관이 선진적으로 등장했다고 해도 지속되지 않고 영산강유역의 다른 지역에서 조영된 옹관분과 비교하여 분구 규모나 부장품에서 특별히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이 지역 정치체들이 영산강유역권의 제소국을 아우르거나 대표할 수 있는 정도의 중심적 정치체로 성장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⁶¹⁾.

3. 4세기 후반 이후 백제와 고 백포만 세력의 관계

4세기 후반 『일본서기』에 보이는 백제의 忱彌多禮 도륙 기사는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즉, “3세기말에 충남 일원의 마한을 병탄한 백제가 4세기 후반에 이르러 전북지역까지 진출하고 연안 해로를 통해 가야 및 왜와 교섭하고자 할 때, 영산강유역 관문포구로 기능하던 백포만의 신미국(침미다례)이 협조하지 않자 가혹한 무력 보복을 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하다면 침미다례는 이전 3세기 후반 신미국이 백제를 견제하기 위해 西晉에 사신을 파견하면서 맺기 시작한 백제와의 악연을 4세기 후반까지 이어가다 백제의 공격을 받게 된 셈이다⁶²⁾.”

59) 김낙중, 「3~6세기 해남지역 정치체의 성장과 변동」, 『호남고고학보』, 51(2015).

60) 3세기 후엽에 읍락단위의 규모로 해양 교류에서 거점 역할을 한 지역이 중국(西晉)에 단위 정치체, 즉 신미 등으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강봉룡, 「3-5세기 영산강유역 ‘옹관고분사회’와 그 성격」, 『역사교육』, 69(1999).

61) 김낙중, 「3~6세기 해남지역 정치체의 성장과 변동」, 79쪽.

62) 강봉룡, 「해남 백포만 고대 포구세력의 존재양태」, 19~20쪽.

4세기 중후엽경에 백포만 세력의 쇠퇴와 관련된 대표적인 유적은 백포만 입구의 안호리·석호리 고분군이 있다. 안호리·석호리 유적의 하한이 4세기 중엽이어서 백제 근초고왕의 남정에 따른 침미다례 도륙 기사와 연계해 볼 필요가 있다⁶³⁾. 그리고, 해남 분토유적과 신금유적, 강진 양유동유적 등 전남 서남해안권 주거·취락 가운데 4세기 중엽경에 화재로 폐기된 예가 많다는 점에서 369년 백제 근초고왕의 남정, 즉 마한 잔여세력 공략설과 연결시켜 볼 수 있다⁶⁴⁾.

백제의 공격 이후 해남 세력은 백제에게 교역로를 제공하고 백제는 이들의 자치를 어느 정도 인정하여 항구도시이자, 국제교역항으로서 성장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⁶⁵⁾.

백제가 서남해 연안 해로를 장악하고 주도하기 위해서는 거점 포구세력의 협조가 필요하기에 새로운 협력세력으로 백포만 내륙의 현산면 고현리 일대 세력을 활용했을 것이다(강봉룡 2016:67-68). 이는 고현리 주변의 일평리, 황산리 분토, 월송리 조산 유적에서 4세기 후반~6세기 전반대의 가야·신라계 유물⁶⁶⁾로서 뒷받침된다(표 5). 요컨대, 369년 백제 남정 이후에는 군곡리유적은 큰 타격을 입고 백포만 내륙인 황산리 분토취락으로 중심지가 옮겨가고 군곡리유적은 해안가에 위치한 선착지로 변했을 가능성이 있다⁶⁷⁾.

이후, 백제가 전남지역을 직접지배하는 사비기에는 그 지정학적·행정적 중요성 때문에 다시 청동기시대 이래 전통적인 중심지였던 백포만 내륙 중심부가 치소로 등장하는데, 현산면 읍호리·고현리 일대에 백제 산성과 고분의 존재로 뒷받침된다.

63) 임지나, 「안호리·석호리유적 피장자 성격」, 69쪽.

64) 정 일·최미숙, 「강진 양유동취락의 특징과 고대사적 의미」, 『호남고고학보』, 45(2013).

65) 김영삼, 「해남지역 정치체의 성격과 지배구조」, 194쪽.

66) 이동희, 「해남반도와 가야·신라의 교류, 그리고 항시국이 지미」, 33쪽.

67) 정 일, 「군곡리유적 원형계 주거지의 성격」, 72쪽.

유적명	유구	출토유물	계통	편년	행정구역
해남 황산리 분토	토광묘	광구소호(경배)	아라가야	5세기 전반	현산면
	토광묘	승문타날호, 단경소호	아라가야	4세기 후반	
	토광묘	철정(5점)	아라가야	4세기 후반-5세기 전엽	
해남 군곡리	주거지	고배, 광구소호(경배)	아라가야	5세기 전반	송지면
해남 현산초교 부근(일평리)	고분	고배	비화가야	5세기 전반	현산면
		고배(유개식)	아라가야	5세기 전반	
		대부장경호	신라	5세기 후반	
해남월송리조산	고분	대부장경호	신라	6세기 전엽	
		f자형경판비, 검릉형행엽 공부다각형철모	왜계 혹은 대가야		

<표 5> 4세기후반~6세기전엽 고 백포만 권역의 외래계 유물 출토 유적(이동희 2018)

VI. 맺음말

본고는 해남 군곡리유적을 중심으로 한 고 백포만의 복합사회 성장과정을 고고자료로 살펴보면서 신미국(新彌國)의 흥망성쇠를 논하였다.

기원전 1세기부터 중국과 일본으로 연결되는 해로상의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그 지정학적 입지가 탁월한 고 백포만 일대는 중요한 기항지이자 교역의 중심지로 등장한다.

고 백포만의 여러 패총 유적 가운데 군곡리 유적이 가장 대규모여서 여러 중소 촌락(패총) 단위를 통괄하는 핵심취락이자 읍락(邑落)의 중심으로 등장했을 것이다. 즉, 군곡리유적의 중심부에 위치한 제의공간은 의례의 중심이면서 정치적 행위의 시원적인 상징물로 추정되므로 초기 정치체인 읍락의 기원과 관련지어 볼 수 있다.

군곡리유적을 중심으로 한 백포만 연안은 국제적인 항구도시로서 성장하여 3세기후엽에는 문헌에서 확인되듯이 영산강유역 고대사회의 관문 역할을 하던 신미국으로 발전한다.

항시국가(港市國家)는 자율성과 개방성이 있어 자유로운 교역활동을 통하여 흥하기도 하지만 주변 유력 정치체의 영향 속에서 쇠퇴하기도 한다. 신미국은 기원전 1세기부터 4세기 중엽까지 서남해안의 거점 항시 역할을 하다가, 4세기후엽에 백제와의 갈등 속에서 공격을 받아 국가가 해체되기에 이른다.

지금까지 군곡리 유적의 발굴조사는 전체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향후 조사 성과에 따라 필자의 논리가 바뀔 수도 있다. 향후 조사성과를 통해 새로운 자료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인제대학교 인문문화학부 교수, leedh1985@daum.net

주제어(Key words):

해남(Haenam), 고 백포만(ancient Baekpo Bay), 군곡리유적(Gungok-ri Ruins), 신미국(Sinmiguk), 항시(port city).

투고일: 2022.10.16. 심사일: 2022.10.31. 게재확정일: 2022.11.08.

<국문초록>

고고자료로 본 고(古) 백포만의 포구세력

이 동 희

본고는 해남 군곡리유적을 중심으로 한 고 백포만의 복합사회 성장과정을 고고자료로 살펴보면서 신미국(新彌國)의 흥망성쇠를 논하였다. 기원전 1세기부터 중국과 일본으로 연결되는 해로상의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그 지정학적 입지가 탁월한 고 백포만 일대는 중요한 기항지이자 교역의 중심지로 등장한다. 고 백포만의 여러 패총 유적 가운데 군곡리 유적이 가장 대규모여서 여러 중소 촌락(패총) 단위를 통괄하는 핵심취락이자 읍락(邑落)의 중심으로 등장하였을 것이다. 즉, 군곡리유적의 중심부에 위치한 제의공간은 의례의 중심이면서 정치적 행위의 시원적인 상징물로 추정되므로 초기 정치체인 읍락의 기원과 관련지어 볼 수 있다. 군곡리유적을 중심으로 한 백포만 연안은 국제적인 항구도시로서 성장하여 3세기후엽에는 문헌에서 확인되듯이 영산강유역 고대사회의 관문 역할을 하던 신미국으로 발전한다. 항시국가(港市國家)는 자율성과 개방성이 있어 자유로운 교역활동을 통하여 흥하기도 하지만 주변 유력 정치체의 영향 속에서 쇠퇴하기도 한다. 신미국은 기원전 1세기부터 기원후 4세기 중엽까지 서남해안의 거점 항시 역할을 하다가, 4세기후엽에 백제와의 갈등 속에서 공격을 받아 국가가 해체되기에 이른다.

<Abstract>

Powers in Ancient Baekpo Bay according to Archaeological Data

Lee, Donghee

This study discussed the rise and fall of Sinnmiguk (state) by examining the growth of the complex society of the ancient Baekpo Bay centered on the Gungok-ri Ruins in Haenam based on archaeological data. From the 1 BC, the area of the ancient Baekpo Bay, with excellent geopolitical location, emerged as an important port of call and trade center as exchanges on the sea route connecting China and Japan became more active. Gungok-ri ruins, the largest one among the many shell mound ruins in the ancient Baekpo Bay, must have emerged as an important and central village that controlled many small and medium villages. In addition, the ritual space located in the center of Gungok-ri ruins is the center of rituals and presumed to be the original symbol of political action. It can be viewed in relation to the origin of the village, an early political body. The Baekpo Bay coast centered on the Gungok-ri ruins grew into an international port city, in so much that it developed into Sinnmiguk (state) that served as a gateway to the ancient society in the Yeongsangang river basin in the late third century, as recorded in the literature. A port city state has autonomy and openness. It may prosper through free trade activities and it may also fall due to the influence of influential political bodies around it. Sinnmiguk served as a stronghold port on the southwest coast from the 1 BC to the middle of the 4 AD. However, it was attacked in the conflict with Baekje and was disbanded in the 4 AD.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가중수 외, 『지금도 살아 숨쉬는 숨바섬의 지식묘 사회』 (성남: 북코리아, 2009).
- 강봉룡, 『바닷길로 찾아가는 한국고대사』 (서울: 경인문화사, 2016).
- 권오영, 「고대 동아시아의 항시국가와 김해」, 인제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편, 『가야인의 불교와 사상』 (서울: 주류성, 2017).
- 박충원, 「화천을 통한 영산강 내륙 교역 가설 검토」, 『군곡리 패총, 동아시아 해양교류의 시작』 (목포대학교박물관, 2019).
- 이동희, 「보성 조성리유적의 성격」, 대한문화유산연구센터, 『고대 동북아시아의 수리와 제사』 (서울: 학연문화사, 2011).
- 이성주, 「국읍으로서의 봉황동유적」, 인제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편, 『김해 봉황동유적과 고대 동아시아-가야 왕성을 탐구하다.-』 (서울: 주류성, 2018).
- 이정호, 「해남 군곡리 패총을 통해 본 대외교류」, 『군곡리 패총, 동아시아 해양교류의 시작』, (목포대학교박물관, 2019).
- 최성락, 『한국 원삼국문화의 연구』 (서울: 학연문화사, 1993).
- 최성락, 「해남 군곡리 패총의 발굴조사 성과와 의의」, 『군곡리 패총, 동아시아 해양교류의 시작』 (목포대학교박물관, 2019).
- 최성락·김영훈, 「해남 군곡리 패총의 위상과 역할」, 『군곡리 패총, 동아시아 해양교류의 시작』 (목포대학교박물관, 2019).

2. 논문

- 강봉룡, 「3-5세기 영산강유역 ‘용관고분사회’와 그 성격」, 『역사교육』, 69(1999).
- 강봉룡, 「해남 백포만 고대 포구세력의 존재양태」, 『백제학보』, 26(2018).
- 강봉룡, 「『마한역사문화권』에서 해남 고대역사문화의 위치」, 『해남 현산에 깃든 마한 소국』 (전라남도·해남군·대한문화재단연구원, 2022).
- 강귀형, 「군곡리패총의 가치」, 『해남 현산에 깃든 마한 소국』 (전라남도·해남군·대한문화재단연구원, 2022).
- 권오영, 「三韓의 ‘國’에 대한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996.
- 김낙중, 「3~6세기 해남지역 정치체의 성장과 변동」, 『호남고고학보』, 51(2015).
- 김미연, 「3~6세기 해남반도 고고학적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7.
- 김영심, 「해남지역 정치체의 성격과 지배구조」, 『해남 현산에 깃든 마한 소국』 (전라남도·해남군·대한문화재연구원, 2022).
- 이동희, 「해남반도와 가야·신라의 교류, 그리고 항시국가 지미」, 『백제학보』, 26(2018).
- 이동희, 「고 김해만 정치체의 형성과정과 수장층의 출현」, 『영남고고학』, 85(2019).
- 이동희, 「고성 내산리 집단의 성격과 포상팔국」, 『영남고고학』, 91(2021).
- 이재현, 「늑도 유적의 성격과 사회 구조」, 『늑도와 하루노쓰지를 통해 본 동아시아 교류의 양상』 (2016 특별전 <국제무역항 늑도와 하루노쓰지>연계 학술심포지움) (국립진주박물관, 2016).
- 이정호, 「만의총고분과 고대사회의 동향」, 『해남 옥천 만의총고분 국제학술대회』 (전라남도·해남군, 2013).
- 이정호, 「해남지역의 고대 문화유산 개관」, 『해남 현산에 깃든 마한 소국』 (전라남도·해남군·대한문화재연구원, 2022).
- 이현혜, 「김해지역의 고대 취락과 성」, 『한국고대사논총』, 8(1996).
- 임지나, 「안호리·석호리유적 피장자 성격」, 『해남 현산에 깃든 마한 소국』 (전라남도·해남군·대한문화재연구원, 2022).
- 정 일, 「군곡리유적 원형계 주거지의 성격」, 『해남 군곡리유적 패총의 재조명』 (목포대학교박물관, 2016)
- 정 일, 「해남지역 마한 취락의 특징과 변화」, 『백제학보』, 26(2018).
- 정 일, 「해남 읍호리 고담·읍호 고분 실체」, 『해남 현산에 깃든 마한 소국』 (전라남도·해남군·대한문화재연구원, 2022).
- 정 일·최미숙, 「강진 양유동취락의 특징과 고대사적 의미」, 『호남고고학보』, 45(2013).
- 조성희, 「황산리 분토 유적 가치」, 『해남 현산에 깃든 마한 소국』 (전라남도·해남군·대한문화재연구원, 2022).
- 조진선, 「해남반도권 지식묘의 등장과 확산과정」, 『호남고고학보』, 71(2022).

최성락, 「해남 백포만 일대의 선사유적」, 『최영희선생화갑기념한국사학논총』 (1987).

최성락·김건수, 「철기시대 패총의 형성배경」, 『호남고고학보』, 24(2002).

한옥민, 「현산 일원의 마한 입주 의례」, 『해남 현산에 깃든 마한 소국』 (전라남도·해남군·대한문화재연구원, 2022).

3. 보고서

국립광주박물관, 「해남 원전리 옹관묘」, 『영암 와우리 옹관묘』 (1989).

김건수 외, 『해남 군곡리 패총 IV』 (목포대학교박물관, 2019).

목포대학교박물관, 『문화유적분포지도-전남 해남군-』 (2002).

목포대학교박물관, 『해남 군곡리패총 V』 (2021).

목포대학교박물관, 「해남 군곡리 패총 제8차 발굴조사 회의자료」 (2022).

전남문화재연구소, 『해남 일평리성지(죽금성) 문화재학술조사(시굴조사) 약식보고서』 (2016).

전남문화재연구원, 『해남 황산리 분토유적Ⅱ』 (2009).

조진선, 「해남의 고인돌 분포와 특징」, 『해남의 고인돌』 (해남군, 2020).

최성락, 「해남지방의 선사유적·고분」, 『해남군의 문화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 1986).

한옥민, 「종합고찰 Ⅱ. 유물 검토」, 『해남 안호리·석호리유적』 (대한문화재연구원, 2019).